

 대한민국정부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5.18.(수) 10:00이후	배포	
책 입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훈(02-2156-9830)	담 당 자	보험과 사무관 권 기 순(02-2156-9835)	
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창준(044-202-2710)		보험정책과 서기관 김 영 학(044-202-2703)	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주환욱(044-215-2750)		자금시장과 사무관 채 원 혁(044-215-2755)	
	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장 최 기 준(033-736-2803)		보험정책연구실 차장 송 성 호(033-736-2815)	
	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 기 호 균(033-739-0860)		의료정보표준화부장 이 미 선(033-739-0861)	
	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 김 동 성(02-3145-8220)		보험상품공시팀장 원 희 정(02-3145-8246)	
	보험개발원 보험요율1부문장 노 병 윤(02-368-4003)		요율통계팀 팀장 김 동 원(02-368-4210)	
	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신 현 웅(044-287-8266)		-	
	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이 태 열(02-3775-9010)		사회안전망연구실 연구위원 정 성 희(02-3775-9024)	

제 목 :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·기관 및 연구 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

- 2016.5.18일(수) 10시,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·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「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< 정책협의회 개요 >

◇ 일시/ 장소 : 2016.5.18(수) 10:00 ~ 11:30 /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
◇ 참석부처 및 기관

- 보건복지부 차관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공동주재)
- 기재부 경제정책국장,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,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
-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금융감독원, 보험개발원
- 보건사회연구원, 보험연구원

- 금일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,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, 그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- 구체적으로,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·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,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.

- 또한,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·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여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되었습니다.

- 금일 회의에서 기재부/복지부/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,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·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.

- 동 TF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여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,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,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·추진하는 한편,

-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하여 의료계·보험업계·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·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(끝)